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공존, 고소설 『이화전』의 서사 구조와 조력자의 의미

The Coexistence of Legendary and Heroic Narratives: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 Role of the Helper in the Classical Novel *Yi Hwajeon*

이상희* · 권하경**

국문요약 이 논문은 조선 후기 고소설 『이화전』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전기 소설적 환상성과 영웅 소설 구조의 공존 양상, 그리고 조력자 서사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이화전』의 전기 소설로서의 면모는 여우 요괴와 혼령의 등장, 초월적 사건 전개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환상성은 조선 후기 사회의 윤리적 위기의식을 상징하며, 요괴의 퇴치는 곧 도덕적 세계의 정화와 질서의 복원을 의미한다. 반면 영웅 소설로서의 면모는 주인공 이화의 성장과 영웅화 과정에서 확인된다. 그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를 완성하며, 황제의 승인을 받고 사당을 건립하며 마무리되는 결말은 ‘출정-시련-조력-승리-승격’의 영웅 서사 구조를 따른다.

특히 명나라 장수 이어백은 혼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초월적 조력자로서, 영웅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 가능하게 하고, 도덕적 정당성과 역사적 명분을 부여한다. 그의 존재는 조선이 명의 도덕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화이론적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화전』은 전기 소설의 환상성과 영웅 소설의 구조, 그리고 조력자의 의미가 공존·융합된 작품으로, 현실의 혼란과 윤리적 불안을 초월적 상상력으로 해소하며 도덕적 영웅 서사를 완성한다. 이는 조선 후기 문학의 사상적 복합성과 서사적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핵심어 이화전, 전기 소설(傳奇小說), 영웅 소설(英雄小說), 조력자, 이어백, 환상(幻想)

- 차례**
1. 서론
 2. 『이화전』의 서사 전개와 영웅 소설의 면모
 3. 『이화전』에서 조력자의 기능과 의미
 4. 『이화전』의 소설사적 의미
 5.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조선 후기의 고소설은 사회 구조의 변화와 사상적 전환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산물로, 다양한 서사 구조와 인물 유형을 통해 당대의 가치관과 집단 심리를 반영하였다. 이 중에서 전기 소설(傳奇小說)은 인간과 초자연,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모순과 도덕적 이상을 상상적으로 변형하는 서사적 공간을 제공하였다.¹

이 계열에 속하는 작품 가운데 『이화전』은 여우 요괴의 퇴치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기 소설로 주로 분류되

* 청원여자고등학교(제1저자)
** 대인고등학교(교신저자)

1 박희병, 『한국 전기 소설의 미학』, 들베개, 1997, 31~40쪽.

어 왔다.² 따라서 선행 연구는 초자연적 존재의 등장이나 권선징악적 결말, 혹은 여우 요괴의 도상적 의미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³ 그 결과 『이화전』이 지닌 복합적 서사 구조, 특히 주인공의 성장과 조력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영웅화 과정, 영웅 소설로서의 면모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화전』은 전기 소설적 환상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영웅 소설의 구조적 면모를 지닌 작품이다. 작품의 중심은 단순한 요괴 퇴치가 아니라, 주인공 이화가 시련과 조력을 거쳐 영웅으로 완성되어 가는 서사적 변증 과정에 있다. 즉, 이화는 초월적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악을 물리쳐 사회적 질서를 회복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전』은 전기 소설의 기이성과 영웅 소설의 인물 성장 서사를 절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조력자’인 이여백은 단순히 주인공을 보조하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서사의 핵심 동력을 제공하는 서사적 매개자로 작용한다.⁴ 그는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 주인공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가능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영웅의 도덕적 정당성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정의 실현이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초월적 존재가 그 결핍을 보완함으로써 영웅의 서사를 완성하는 조선 후기의 서사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화의 영웅성은 절대적 힘이나 신분적 특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한계를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실현하는 도덕적 영웅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인물상은 기존의 이상적 군자형 영웅에서 벗어나, 시대적 혼란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질서를 회복하려는 새로운 인간상으로 읽힌다. 『이화전』의 영웅화 서사는 따라서 개인적 성공이나 복수의 완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도덕 질서의 회복이라는 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화전』에서 혼령이라는 존재 양식, 즉 귀신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설정은 영웅의 완성을 위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귀신은 공포나 원한의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 작품에서 귀신은 인간의 정의 실현을 돕는 초월적 협력자로 등장한다. 이러한 설정은 인간과 초자연의 관계를 대립에서 협력으로 전환시키며, 조선 후기 사회의 세계 인식인, 합리와 신비, 인간과 초월이 공존하는 복합적 사유를 반영한다. 즉, 『이화전』의 영웅 서사는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초월적 조력과의 결합을 통해 이상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영웅적 세계관을 보여 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화전』을 영웅 소설적 관점에서 새롭게 읽고자 한다. 첫째, 이 작품이 지닌 전기 소설적 환상성과 영웅 소설적 구조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고, 둘째, 귀신 조력자의등장이 영웅 서사 전개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의미를 고찰하며, 셋째,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도덕적 상상력과 영웅 서사 의식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화전』은 단순한 요괴 퇴치담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적 상상력이 전기 소설의 형식 속에서 구현된 작품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2 김기동, 전규태 편, 『이화전, 권옹선전, 양주봉전』, 서문당, 1994; 박용식, 『한국고전문학전집16: 금방울전, 김원전, 남운전, 당태종전, 이화전, 최량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3; 이주영, 『『이화전』 연구』, 『과학과 문화』 1(1), 서원대 미래창조연구소, 2004; 최귀목, 『〈장인결전〉 연구』, 민담, 『이화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 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0; 한명현, 『『이화전』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 박대복·유형동, 『〈전우치전〉과 『이화전』의 전기적 상상력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박송희, 『『이화전』의 무속 요소 고찰』, 『우리문학연구』 33, 우리문학회, 2011; 이종필, 『『이화전』에 나타난 임진전쟁의 기억과 상상적 존재들의 의미: 19세기 말의 시대상을 통해 본 시론적 고찰』, 『동방학』 30, 동양고전연구소, 2014; 이후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의 양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4 박은미, 『영웅 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 〈홍길동전〉·〈유충렬전〉·〈용문전〉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서보영, 『보조 인물 중심의 고전소설 감상 양상 고찰: 〈숙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20.

『이화전』이 보여 주는 영웅의 형성, 조력자의 개입, 그리고 도덕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세 축을 통해, 조선 후기 고소설이 전기적 환상에서 영웅적 윤리 서사로 이행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텍스트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이화전』의 서사 전개와 영웅 소설의 면모

『이화전』은 인간과 요괴, 현실과 초월, 조선과 중국이라는 다층적 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조(宣祖) 말에 전라도 여산의 거대한 은행나무 속에 수천 년 동안 숨어 살던 여우 요괴가 여산의 부임한 관원들을 죽이는 괴이한 사건으로 시작된다.⁵

전라도 여산 고을가 니마다 죽고 그 싸히 황폐하여 인심이 케란함을 드러시고 깊히 근심하여 유예불평하시더니, 시의 니훤란 장지 이서 일즉 무과출신하여 오리 벼슬을 못하고 분을하여 하더니 츠언을 듯고 상소하여 주왓, “신이 이제 과거와 십여 년의 벼슬을 못하옵고 성하의 무익함을 속야의 혼이 깊습더니, 이제 여산의 지변이 고이와 본슈이 위티호오니, 신이 비록 죄죄 업소오나 신이 혼 번 입거와 사변을 제어호오리이다.” 상이 스스로 보시고 디회하여 즉일 녀산부스를 제슈하시니, 니화 디회하여 사온고 집의 도라오니가 죽이 디경고 부모 왓, “이제 녀산 가는 원마다 죽은 지 삼십여 인이라. 네 구투여 즈원하여 죽으라 혼문 었디오? 발니 갈고 가지 말나.” 심이 디왓, “소즈 듯즈오니 사불범정이라 호오니 조금도 과려치 마르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고 발히스일의 여산의 이르러 도입고⁶

회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영웅의 등장을 예고한다. 이때 등장하는 주인공 이화는 지방의 관리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공적(公的) 사명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 복수심에 의해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가 질서의 수호자로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관료형 영웅으로 설정된다.

이화는 여우 요괴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등장한다. 명나라 장수 이여백의 혼령이 나타나, 요괴를 물리칠 수 있는 지략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니훤 그 자물쇠 속의 니여백의 혼이 접하여시물 알고 읍중 지변을 알고져 하니, 츠인의 신기묘량과 덕을 알니러라. 잠을 쇠를 압회 노코크게 소리하여 니여백을 부르니, 그 쇠속의서 쾌히 디답하니, 원니 고성 왓, “넉 그디 성명을 드러니 디국 명장이라. 불행히 타국 난군 죽음이 망하미 인가의 차탄하느 비어늘, 비록 혼백이나 녹록히 마을 집 자물쇠 속의 드미 증상의 청을 들어 사름을 히하니 그디의 용상함을 위하여 웃노라.” 여백이 감탄 왓, “넉 네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만니타국의 왔다가 익히히 난군 등의 죽으물 만나 이런 고훈이 유유향탕하여 의회할 길히 업거늘, 이 집 자물쇠 나히 만하 가히 주점히기 맛당하리라. 머므로온진 오라지 아닌지라. 무슨 사름을 히하미 잇시리오?”⁷

니훤 은둔 문왓, “조흔 씨을 가르치면 엇지 당치 못하리오?” 여백 왓, “저 은힉남게 천여 년이나 한 무근 여우 자옹이 잇서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를 썩라먹으니 점점 요술이 더욱 신기하리라. 잡기를 착실히 흘지니, 이 고을 백성들을 다 영하여 만군을 겹겹니 진쳐 인인이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약하여라 호고, 디톱과 큰 도치를 남글 버히면 처음 혈이 낭즈홀 거시니 이는 잡귀라. 남웃 싯히 빅발 노옹 노괴

5 본 논의의 작품 분석은 박용식의 교주본을 활용하기로 한다. 박용식, 『한국고전문학전집16: 금방울전, 김원전, 남윤전, 당태종전, 이화전, 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3.

6 박용식, 앞의 책, 1993, 352쪽.

7 위의 책, 358~360쪽.

날 거시니 억만병으로 여우 잡기을 일시의 들홀 다 자아니면 변이 업스리라.” 니혜 츠언을 듯고 깃거 왈, “니 착실이 홀 거시니 넘너 말나.”⁸

이러한 장치는 전기 소설의 초자연적 환상성과 영웅 소설의 구조적 긴장을 결합하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⁹ 인간의 제한적 능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초월적 존재가 개입함으로써, 영웅의 한계는 극복되고 정의의 실현은 완성된다. 이 장면에서 이어백의 혼령은 단순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이화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윤리적·정통적 조력자로 작용한다.

요괴를 무찌르는 장면은 단순한 괴력의 승부가 아니라, 인간의 정의와 초월적 질서가 협력하여 세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상징적 행위로 그려진다. 여우 요괴는 오랜 세월 은행나무 속에 숨어 살아온 존재로, ‘자연 속에 잠복한 악’ 혹은 ‘은폐된 탐욕’을 상징한다. 그를 퇴치하는 것은 곧 공동체의 생명력을 되찾는 행위이며, 이화의 승리는 개인적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안정을 되찾는 사건으로 제시된다.

원이 문득 고성디즐 왈, “너희 관원의 지휘을 바다 몸이 비록 진흐나 마치 아니려든 남과 지변이 여츠흐미 버히는 비라. 너희 방즈히 구러 디스를 이러듯 그릇게 하니 반드시 살이지 못흐리라.” 호령이 이 곳흐니, 제군이 마치 못흐여 일시의 버히니라. 연호연 나모 우히 빅발 노옹 노괴 이서 살니라 벽역 갖치 지르니, 문득 천지 함식흐는 듯 일광이 혼무흐고 음풍이 디작흐며 너외 진동흐니 상하 제군이 다 것구러지니, 혜 계유 정신을 츠려 고성 왈, “모든 군스는 창검을 발흐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흐여 겁촉흐니, 군민이 계유 인스를 츠려 일시의 고탈흐고 남글 버히니, 요괴 둘이 싸히 찌러지니 길이 홀 발은흐고 금광 갖흔 여이라. 화살과 창검으로 그 즘싱을 죽이니,

그 정신을 츠려 원의게 사레 왈, “일언 요괴 읍중의 잇서 종전 디변이 그러흐옵더니, 성주 명감신과 이 갓스오시니 이제는 툃평을 누리올지라. 엇지 아랏시리오? 천신이 강님흐여 여러 원님 보원을 흐시다.”¹⁰

이후 서사는, 두 요괴 중 하나인 암 여우가 도망쳐서 명나라 황제의 애첩인 귀인을 죽인 뒤 자신이 그 귀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황제를 미혹시킨 암 여우는 이화가 황제와 자신을 해할 것이라 모함하고, 이에 따라 황제는 이화를 명으로 보내라는 황칙을 조선에 보낸다. 명으로 가는 길에 이화는 우연히 이어백의 혼령과 재회하고 암 여우를 퇴치할 방법에 대해 듣게 된다. 그리고 이를 따른 결과 암 여우를 퇴치하고 황제는 비로소 암 여우의 정체에 대해 깨닫게 된다. 황제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관직을 내려주며, 이화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조력자 이어백을 기리는 사당을 세운다.

화 전후 슈말을 제제히 슈달흐니, 황대 차탄흐시고 상심 참담흐샤 귀인이 여이의게 죽은 줄을 척연흐샤 여이 죽음을 일만 조각을 너여 귀인의 신위를 위흐시고 제문지어 제흐시고, 좌우을 도라보아 가르샤되, “니혜의 신과 도술이 아니련들거의 종샤를 보전치 못흐고 천하강산이 타인의게 도라가물면 치 못홀노다.” 군신이 일시의 만세를 불너 하레 왈, “니혜의 신과 묘산으로 대화를 진정흐오니 이는 폐하 흥복이로쇼이다.” 상이 전교 왈, “니화를 녁능티슈 무신후을 봉흐라.” 흐시고 금은보화를 만히 슈시니, 혜 황공복지 왈, “소신이 천위를 범흐온 죄 중흐옵거늘 뉘흔 봉작을 슈시고 쏘 중상을 엇지 바드리 잇가? 복원 폐하는 신의 무려흔 죄을 다스리소서.” 상이 위로 왈, “경은 진실노 사직지신이라. 조선의 지자 만흐물 희열흐니 니 경은 스양치 말나.” 니혜 빅비 샤은흐고 물너나다.¹¹

8 위의 책, 362쪽.

9 박희병, 『한국 전기 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41~50쪽.

10 박용식, 앞의 책, 364쪽.

11 위의 책, 376~378쪽.

오리지 아나 왜 니르어 상달하니, 상이 썰니 불너 인견흐
 사 칭찬 왈, “집이 지각이 업서 영웅과 신기를 아지 못흐얏더
 니 진실노 경은 고금의 업슨 지략이라. 덕국의 니르어 달고 업
 시흐고 조정을 녕정하야 아국을 빗니니 금옥 갖흔 절효 죽벽
 의 드리오나 빗지 못흐리로다.” 여러 번 칭스흐샤 도총부 총
 관을 흐이시고 충열공을 봉흐시니, 왜 고두 사은흐고 집의 도
 라오니 부피 반기미 극흐니, 연니 집슈흐여 통곡 반항의 깃부
 물 니르혀 싱환흔 슈말을 전후스를 일일이 고흐되, 부피와 처
 즘며 시비 등이 깃부물 이지 못흐고 전의 니여벽의 가르친 덕
 으로 두 번 살기를 엇고 낭국의 덕공을 어더시물 칭찬흐고, 은
 혜을 망극하야 부피 니르되, “진실노 여벽의 은덕 세세싱싱예
 다 감지 못흐리라. 허물며 너와 네 즘손은 덕덕로 잇지 못흐리
 라. 별쌍의 스당을 일우고 화상을 만드러 스시 향화를 쫓지 아
 니미 올흐니라.” 화 즉시 화상 만드러 스당의 곁고 스우를 잇
 게, 덕덕로 즘손이 향화를 쫓지 아니흐니라.¹²

이러한 결말 구조는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출정 - 시
 련 - 승리 - 귀환 - 승격”의 서사 구조를 충실히 따른다.
 특히 ‘황제의 승인’은 영웅의 행위를 국제적 질서 속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정 장면으로, 영웅의 도덕적 정당성
 과 사회적 위상을 완결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사당
 건립이라는 결말은 영웅 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억의
 제도화로, 영웅과 조력자의 공적이 세속적 공간 속에 영구
 히 보존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¹³

이화의 인물 형상 또한 영웅 소설적 특질을 뚜렷이 보
 여 준다. 그는 초인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인간적
 한계 속에서도 정의를 실천하려는 도덕적 영웅으로 묘사
 된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지
 만, 조력자와의 협력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 공동
 체의 질서를 회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전』의 영웅상
 은 무(武)의 영웅이 아니라 도의(道義)의 영웅, 즉 ‘정의의

실천자’로 규정된다.

결국 『이화전』은 전기 소설의 기이한 사건과 영웅 소설
 의 구조적 서사를 결합한 작품이다. 여우 요괴의 퇴치라는
 전기적 소재는 영웅의 도덕적 성취를 위한 시험이자 매개
 로 작용하며, 초월적 조력자의 등장은 영웅 서사의 완성을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나아가 황제의 승인과 사당 건립으
 로 이어지는 결말은 이화가 개인적 승리를 넘어 사회적 질
 서와 도덕적 정의를 회복한 완성된 영웅으로 자리매김했
 음을 상징한다.

즉, 『이화전』은 인간과 초월적 존재, 조선과 중국, 정의
 와 신성이라는 이중의 세계를 매개하면서, 전기적 상상력
 속에서 완성된 영웅 소설적 서사를 구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불안과
 윤리적 위기의식을 반영하면서도, 인간의 정의와 초월적
 질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상상력을 제시한다.

3. 『이화전』의 조력자의 기능과 의미

『이화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서사적 특징은 주인공
 이화가 요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
 는 점이다.¹⁴ 명나라 장수 이여백의 혼령이 등장하여 이화
 를 도와 여우 요괴를 물리치는 장면은, 이 작품의 서사를
 전기 소설의 환상적 차원에서 영웅 소설의 구조적 완성으
 로 이끄는 핵심적 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세 가
 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 서사 전개의 동력으로서의 조력자

이여백 혼령의 등장은 단순한 초월적 장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다. 작품 초반에서
 이화는 여우 요괴의 실체를 인지하고 퇴치하려 하지만, 인
 간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실패한다. 이때 이여백의 혼령이

12 위의 책, 380~382쪽.

13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7, 80~90쪽.

14 서대석,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3, 휴머니스트, 2008, 122~124쪽.

출현함으로써 서사는 정체 상태에서 전진하게 된다.

니헤 국하의 하직고 발헝헝여 삼일이 되미 니둥의 니르러
 홀노 잠이 업스니, 문의 비겨 비회를 정치 못하야 탄식 오열
 의 하늘을 우러러 추수하더니, 홀연 공중의서 불너 평부를 무
 르니, 왜 경혹답 왓, “혼야의 뒤 날을 은근히 불너 못노요?” 답
 왓, “나는 니여빅이니, 이제 네 저러토흐 힝식이 이실 줄 먼져
 헤아린 배라. 감히 참혹하야 오지 못하미로다.” 니헤 반갑고
 깃부물 썩여 답 왓, “금야 츠즈미 실시녀의라. 싱스의 유신하
 물 알니로다. 과연 그딤 녕신의 이긋하물 항복하나 당츠 엇지
 리요?” 여빅이 위로 왓, “너 츠츠 네 살 길홀 니르고져 하미라.
 슈회를 그치고 즈셔히 드르라.” 니화 감은하물 이기지 못하더
 니, 여빅 왓, “너일 발헝헝야 반일이 못하야 비가 오거든 여츠
 여츠한 집의 들면 보라미 이실 거시니 갑살 헤르지 말고 스가
 지고, 디국의 니르러는 황데 반드시 오솔 벗고 들나 하나 죽기
 로 그음하고 벗지 말고, 그 밭을 스미 속의 너코 드러가 너여
 노호면 살 계교 족히 될 거시오. 공명도 어들가 하노라.” 니헤
 대희 각음 왓, “브라지 아인 밧긋의 니르어 은근이 살기를 두
 번 가르치니, 진실노 은혜 빅골난망이라.” 타세의 갑기를 괴
 약하야 상벌하니라.¹⁵

이여백은 요괴를 제압하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이화
 에게 정신적 확신과 물리적 힘을 동시에 부여한다. 이러한
 개입은 영웅이 단독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난
 관을 해소함으로써, 서사의 균형을 회복하고 클라이맥스
 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즉, 이여백은 초월적
 존재이지만, 서사적 기능의 측면에서는 플롯을 재가동시
 키는 촉매자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조력자의 개입은 고대 서사나 영웅담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의 개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¹⁶
 『이화전』의 경우에는 단순히 영웅의 무능을 보완하는 외

부 개입이 아니라, 영웅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는 서사적
 장치로 의미화된다. 이화는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초월적 질서와 협력해야 비로소 정의를 완
 성할 수 있음을 체득한다. 따라서 이여백의 혼령은 서사적
 동력일 뿐 아니라, 영웅의 자각과 완성을 매개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3.2. 도덕적 정당성의 보증자

이여백의 혼령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정의의 실
 현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존재로 작동한
 다. 이화가 수행하는 요괴 퇴치는 개인적 복수나 관료적
 임무 수행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만으로는 초월적 악을 제압하
 기 어렵기에, 영웅의 행동은 초자연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
 다. 이때 이여백의 혼령이 등장함으로써, 영웅의 행위는
 “신성(神聖)의 승인”을 얻게 된다.¹⁷

상이 근심하샤 통곡 왓, “아국이 불헝헝여 왜적의 함몰홀
 비 되어서되 일인도 가히 막을 지 업스니 이를 어이하며 쥬극
 빅성이 반년의 뉴리홀 줄 엇디 알니오.” 하시고 감창 뉴체하시
 니 빅관이 오열고두 청죄 왓, “이제는 달니 처치하올 길히 업
 스오니 디국의 청병이나 하야 쳐보미 맛당홀가 하노이다.” 상
 이 올히 여기사 등원의 스신 보니여 청병하시니, 명 텃진 디경
 진노샤 즉시 장슈을 싸여 보니실시, 당군이 니여빅 형테을 장
 슈삼아 일만 정병을 거느려 보니시니, 여빅 형제 하직고 스신
 과 헝가지로 아국의 니르어, 여빅은 좌선봉이 되고 녀송은 우
 선봉이 되어 각각 군스를 거느려 나아가 왜적을 접전하야, 슈
 함이 못하야 적병이 디픽하야 항열을 일코 아모리 홀 줄 몰나
 스방으로 분산하야 살기를 브라 도라가니라.¹⁸

15 박용식, 앞의 책, 372쪽.

16 서대석, 앞의 책, 125쪽.

17 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8, 461~467쪽.

18 박용식, 앞의 책, 1993, 350~352쪽.

이여백은 생전에 명나라의 장수였던 인물로, 충절과 의리를 상징하는 존재다. 그의 혼령이 이화에게 조력하는 것은, 영웅의 정의가 사적인 욕망이 아니라 보편적 윤리와 의리(義理)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곧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인간적 정의가 초월적 질서와 결합되어야 완성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즉, 『이화전』의 귀신 조력자는 단순히 ‘힘의 원천’이 아니라, 정의의 합리화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조선 후기의 유교 사회에서는 인간의 윤리적 행위가 천리(天理)에 부합할 때만 진정한 정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여백의 혼령은 이러한 천리의 대리자이자, 인간 세계와 초월 세계를 잇는 도덕적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화의 영웅 행위는 초월적 정의의 보증 아래에서 완성되며, 그 정당성은 사회적 질서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3.3. 역사적-문명적 상징으로서의 조력자

이여백은 단순히 개인 영웅의 보조자가 아니라, 조선과 명(明)이라는 두 문명권을 잇는 상징적 존재로 읽을 수 있다. 그의 혼령이 조선 관리 이화에게 조력을 제공한다는 설정은, 조선 후기 문인들이 인식한 명분론적 세계관, 즉 “의리의 계승자”로서의 조선의 자의식을 반영한다. 명의 충신이 조선의 관리에게 힘을 빌려준다는 설정은 곧 조선이 도덕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이는 현실적으로는 국가적 정체성의 서사화로 작용한다.

또한, 이야기의 결말에서 이화가 중국으로 건너가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관직을 받는 장면은, 조력자와의 관계가 단순히 초자연적 사건의 해결을 넘어서 문명 질서 속의 승인 구조로 확장된 것을 보여 준다. 이여백의 혼령은 영웅이 국제적 권위 체계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도는 전기 소설의 환상성과 영웅 소설의 사회적 구조가 결합된 결과이며, 동시에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인 ‘화이(華夷) 질서

속의 도덕적 상상력’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화전』의 조력자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인간과 초월적 존재의 협력이라는 구조를 통해 인간 중심의 한계를 자각시키고, 도덕적 완성은 신성의 협력 속에서 가능하다는 세계관을 드러낸다. 둘째, 의리의 계승을 통해 조선 사회의 도덕적 정통성과 명분 의식을 상징한다. 셋째, 기억과 제의의 매개자로서, 작품의 결말에서 사당 건립을 통해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역사적 기념으로 고정함으로써 정의의 영속성을 상징한다.

이렇듯 『이화전』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이여백의 혼령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환상적 요소가 아니라, 영웅 이화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도덕적 질서를 완성시키는 서사의 중요한 축(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화전』은 귀신의 개입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의지가 초월적 질서와 결합될 때 비로소 완전한 정의가 구현된다는 사유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전기 소설의 환상성을 영웅 서사의 윤리 구조로 승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 『이화전』의 소설사적 의미

: 전기적 환상성과 영웅 서사의 결합

『이화전』은 조선 후기 고소설의 복합적 성격을 집약한 작품으로, 전기 소설의 환상성과 영웅 소설의 구조적 긴장이 정교하게 결합된 사례이다. 작품은 여우 요괴의 퇴치라는 기이한 사건을 중심으로, 초월적 존재의 개입과 인간 영웅의 행위가 맞물리며 전개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화전』은 단순한 요괴담이나 권선징악적 교훈담을 넘어, 도덕적 질서의 회복과 인간 정의의 완성이라는 조선 후기 문학의 근본적 문제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거듭

난다. 즉, 『이화전』은 환상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윤리적 위기를 사유하고, 초월적 조력과 인간적 의지가 결합되는 순간에 도덕적 세계가 완성된다는 인식을 서사적으로 구현한다.¹⁹

4.1. 전기 소설적 면모: 환상성과 도덕적 세계의 매개

『이화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조선 후기 전기 소설의 전통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기 소설은 기이하고 초월적인 사건을 서사화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도덕적 질서를 재조명하는 문학 양식으로, 현실과 환상, 인간과 초월의 경계가 맞닿는 지점에서 사회의 불안과 윤리적 긴장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닌다. 조선 후기의 전기 소설은 단순한 괴이담(怪異譚)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를 상상적으로 비판하고 도덕적 세계를 복원하려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전』은 전기 소설의 환상성과 윤리적 서사가 결합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작품의 발단은 여산의 오래된 은행나무 속에 수천 년 동안 숨어 살던 여우 요괴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설정은 전기 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 즉, 초자연적 존재의 출현을 통해 인간 세계의 도덕적 위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충실히 따른다. 여우 요괴는 단순히 괴이한 생물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탐욕, 위선, 부패 등 부정적 심리의 외화(外化)로 이해된다. 조선 후기 사회는 신분 질서의 동요, 경제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기존의 윤리 체계가 흔들리던 시기였다. 『이화전』 속의 여우는 이러한 시대적 불안과 윤리적 혼란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며, 현실의 혼란을 초월적 상징체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재현한다.

이 작품의 환상성은 단순히 기이한 사건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 질서의 위기와 초월적 정의의 대립을 시각화하는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여산의 은행나무 속에 은폐된 여우 요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 깊숙이 스며 있는 악의 구조를 형상화한 존재이며,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인간이 마주한 도덕적 불균형과 사회적 부조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니해 왈, “여언이 최선하니 지리히 니르 거시 아니니, 니다 만 긴요히 못고져 호는 일 이시니 혼은 스양치 말나.” 하고, 인하여 문왈, “니 드르니 이 고을 원이 전후의 오느 니마다 죽는 지 하나 둘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요시 작난호미라. 엇디 알 쇼냐?” 여익 왈, “니 모르지 아니호나, 이 사귀 역 만여 년 무근 은힘남게 점유하여 신귀 묘산이 천 만니를 끼치고 능통 요술 이 니미망양을 다 멸하니, 이러므로 고을 원이 만히 죽어시나 감히 니 구치 못하여니, 제어할 도리 극난하니 아니 못 밋말 과 의시 부절업도다.” 니해 츠언을 드르미 스세 다난호되 종 니 아라 제방할 뜻을 두고 다시 문왈, “니 비록 용열호나 약간 간스로 업시할 거시여늘, 말을 쫓착니고 못지 아니문 날을 업 슈이 여기미라. 썰니 니르지 아니호며 니 호 보검이 슈중의 잇 스니 네 혼녕을 버히리라.”²⁰

이화가 요괴의 실체를 밝혀내고 퇴치하는 과정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현실의 부패를 정화하고 윤리적 질서를 복원하는 행위로 의미화된다. 『이화전』의 전기적 상상력은 현실의 도덕적 혼란을 해명하고 초월적 정의의 회복을 모색하는 상상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 작품에서 환상성은 또한 인간과 초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로로 작용한다. 전기 소설의 중요한 특질 중 하나는 초자연적 존재가 인간 세계에 개입함으로써 윤리적 긴장을 유발하고, 그 결과 인간의 도덕 의식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화전』 역시 이러한 구조를 충실히 따른다. 여우 요괴의 출현으로 인해 드러난 세계의 혼란은 인간과 초월의 협력 속에서 봉합된다. 주인공 이화는 현실의 도덕적 의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조력자인 귀신 이여백

19 조지프 캠벨, 이윤기역, 앞의 책, 461~467쪽.

20 박용식, 앞의 책, 360~362쪽.

은 초월의 영역에서 정의를 매개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 두 세계의 교차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선 후기의 윤리적 상상력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화전』의 전기 소설적 면모는 초자연적 사건의 묘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 세계의 회복을 위한 상상적 실험의 장이며, 초월과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윤리 의식을 재조명하는 서사적 구조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전』은 전기 소설의 환상적 특질을 단순한 기이담으로 소비하지 않고,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화전』의 환상성은 조선 후기 독서 문화의 맥락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²¹ 당시 독자들은 문학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도덕적 교화와 자기 성찰의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여우 요괴를 퇴치하는 서사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해야 할 윤리적 이상과 정의의 회복을 상징하는 상상적 서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화의 행위는 영웅적 무용담이 아니라, 현실 속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윤리적 실천의 은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전』의 전기적 환상성은 조선 후기 사회의 혼란과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식인의 상상적 대응이자, 초월적 서사를 통해 현실 윤리를 재구성한 문학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화전』은 전기 소설의 환상성을 기반으로 현실 세계의 부조리를 재현하고, 초월적 질서와 인간적 윤리가 교차하는 도덕적 세계의 재건 서사를 완성한다. 현실의 위기를 초자연적 상상력으로 사유하고, 다시 그것을 윤리적 세계관으로 되돌려놓는 이중 구조는 『이화전』을 전기 소설의 전통 안에서 한층 발전시킨 윤리적 환상 서사로 자리매김하게 한다.²²

4.2. 영웅 소설적 면모: 인간의 한계와 정의의 실현

『이화전』의 주인공 이화는 요괴 퇴치의 서사를 통해 영웅으로 성장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는 초자연적 존재와 대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단순한 관료의 위치를 넘어 공동체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영웅적 인물로 제시된다. 이화의 행동은 개인적 명예나 복수가 아닌, 혼란에 빠진 세상을 바로잡고 인간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작품 속에서 이화는 위기에 처한 현실을 구제하는 중심인물로서, 도덕적 확신과 실천을 통해 점차 영웅으로 완성되어 간다.

이화의 영웅성은 절대적인 힘이나 신분의 고귀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니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요괴를 제압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초월적 존재인 이여백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그의 영웅화 과정은 도덕적 성장과 자각의 서사로 이해된다. 이화의 승리는 단순한 물리적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부의 초월적 힘과 협력하여 정의를 실현한 결과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영웅의 완성이 힘의 과시가 아니라 인간적 결핍을 넘어선 내적 성숙의 과정임을 보여 준다.

이화의 성장 서사는 조력자의 개입과 맞물리며 완성된다. 이여백의 혼령은 초월적 조력자로서 이화가 요괴를 제압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그의 행동에 정당성과 확신을 부여한다. 이화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월적 도움을 받아 정의를 실현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즉, 그는 외적 조력에 의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조력의 의미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결단으로 변환하는 주체적 영웅으로 그려진다. 이화가 단순히 신적 힘에 의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정의를 완성하는 점이 『이화전』의 영웅 서사를 차별적으로 특징짓는다.

21 이윤석, 『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135~143쪽; 유춘동, 『한국 고소설의 현장과 문화지형』, 소명출판, 2018, 46~60쪽.

22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5: 환상물』, 이론과 실천, 2016, 24~30쪽.

결말에서 이화는 황제로부터 공적을 인정받고 관직을 제수받는다. 이 장면은 영웅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단계로,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구조인 ‘출정-시련-조력-승리-승격’을 충실히 따른다. 이화의 행위는 개인의 의로움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 질서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이화가 귀국 후 이여백의 공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는 결말은 영웅의 행위가 일회적인 사건을 넘어 기억과 제의의 형태로 지속되는 서사적 완결을 의미한다.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역사적 공간 속에 고정함으로써, 작품은 인간과 초월이 협력해 완성한 정의가 영속적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그려낸다.

이화의 영웅화는 외적 위업보다 내적 변화를 통한 윤리적 완성의 의미를 지닌다. 이화는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초월적 힘과 협력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지향하는 정의를 완성한다. 이러한 영웅의 형상은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인간상으로 읽힌다. 『이화전』은 이처럼 인간과 초월이 조화를 이루는 서사 속에서 영웅의 성장을 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소설의 환상성과 영웅 소설의 구조가 교차하는 새로운 서사적 완성도를 보여 준다.

결국 이화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타자와 협력함으로써 정의를 이루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의 영웅화 과정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정의를 초월적 존재와의 협력 속에서 실현하는 도덕적 영웅 서사로 귀결된다. 이화의 이야기는 전기 소설의 환상적 요소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를 통해 인간의 가능성과 윤리적 의지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전』은 초자연적 세계와 인간의 도덕적 실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의의 실현과 인간 성장의 서사적 가능성을 탐색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3. 조력자의 의미: 초월과 윤리의 매개

『이화전』의 서사에서 가장 독특한 장치는 조력자의 존

재이다. 명나라 장수 이여백의 혼령은 초월적 존재로서 이화의 시련을 극복하게 만드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단순한 환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과 초월, 조선과 명(明), 인간과 신성의 경계를 잇는 상징적 인물이다.

첫째, 이여백의 혼령은 서사의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화가 요괴를 단독으로 상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력자의 개입은 사건의 정점을 만들어내며, 영웅 서사의 구조를 완성시킨다. 둘째, 그는 정의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존재다. 조선의 관리가 명나라 장수의 혼령과 협력하여 악을 물리친다는 설정은, 영웅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용기나 기술이 아니라, 역사적 정통성과 의리(義理)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그는 문명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명의 충신이 조선의 영웅을 돕는 구조는, 조선이 명의 도덕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문화적 자의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구조는 당시 조선 후기의 화이론적 세계관, 즉 조선이 스스로를 ‘도덕의 마지막 보루’로서 인식하고 있던 사상적 분위기를 문학적으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여백의 혼령은 단순히 초월적 조력자가 아니라, 『이화전』의 도덕적, 사상적 중심축을 이루는 인물이다. 그는 영웅 이화가 사회적 정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정당성, 역사적 연속성, 초월적 협력을 상징하며, 그 존재 자체가 영웅 서사의 완결 조건이 된다.²³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문학이 지닌 복합적 인식 구조를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전기적 환상은 단순한 기이한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현실의 도덕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한다. 영웅 서사의 구조는 그 위기를 해결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인간적 윤리의 서사적 구현을 담당한다. 그리고 조력자의 개입은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하며, 인간의 정의가 초월적 대상의 도움 속에서 완성

²³ 오순 스콧 카드, 김지현 역, 『캐릭터 공작소: 베스트셀러 작가 오순 스콧 카드의 소설 창작 노트』, 황금가지, 2013, 132~150쪽.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복합적 서사 구조는 조선 후기 사회의 사유 체계를 반영한다. 사회적 질서가 흔들리고 가치 체계가 재편되던 시대에, 『이화전』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혼란과 악을 도덕적 상상력과 초월적 질서의 협력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실과 환상의 대립을 넘어, 현실을 초월로 구원하고 초월을 현실 속에 윤리적으로 구현하는 상상력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화전』은 전기 소설의 환상성과 영웅 소설의 구조, 그리고 조력자의 초월적 상징성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서사적으로 실현한 작품이다. 현실의 위기 속에서 인간과 초월, 조선과 중국, 윤리와 신성의 협력으로 정의를 회복하는 이 서사는, 조선 후기 문학이 도달한 가장 성숙한 윤리적 상상력의 형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이화전』은 단순히 요괴 퇴치의 기이담이 아니라, “도덕의 세계를 환상 속에서 재구성한 영웅 서사”, 그리고 “초월적 윤리와 인간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문학적 모형”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전』은 조선 후기 고소설이 이룬 장르적 융합과 사상적 깊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5. 마무리와 과제

지금까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공존 양상과 조력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화전』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전기 소설의 환상성과 보편적 영웅 소설의 구조, 그리고 초월적 조력자의 상징성이 정교하게 결합된 조선 후기 고소설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우 요괴의 퇴치라는 기이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정의와 초월적 질서가 맞물리며 전개되는 이 작품은 단순한 괴담이나 교훈담을 넘어, 도덕적 질서의 회복과 인간적 정의

의 완성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전기 소설적 요소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환상적 장치로, 사회적 혼란과 윤리적 위기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우 요괴라는 존재는 인간의 욕망과 부패를 상징하며, 이를 퇴치하는 서사는 곧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의미한다. 이화의 영웅화 과정은 이러한 환상적 설정을 구체적 도덕 서사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화는 관료적 책임과 인간적 한계를 동시에 지닌 인물로, 초월적 조력자와의 협력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 이러한 영웅상은 초인적 능력보다 윤리적 실천과 공공적 책임 의식을 중심으로 구축된 조선 후기의 새로운 영웅상을 보여 준다.

특히 명나라 장수 이여백의 혼령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설정은 작품의 사상적 핵심을 이룬다. 이여백은 단순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정통성과 도덕적 의리의 계승자로서 기능하며, 조선 후기 사회가 공유한 명분론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의 개입은 영웅의 행위를 초월적 윤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조선이 스스로를 ‘의리의 종주국’으로서 인식하던 시대정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이처럼 『이화전』은 초월적 환상성과 현실적 윤리, 개인의 도덕과 문명 질서가 교차하는 장르적 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화전』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기 소설의 환상성을 도덕적 서사로 변환시킨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초월적 상상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영웅 소설의 구조를 수용한 전기 소설의 변형 사례로서, 영웅의 성장과 공동체 질서의 회복을 통합한 복합 서사 구조를 보여 준다. 셋째, 조력자 모티프를 통한 초월적 윤리의 서사화로, 인간의 정의와 초월적 정당성이 결합하는 윤리적 상상력을 구현하고 있다. 이로써 『이화전』은 전기 소설의 한계를 넘어서 “영웅의 도덕적 완성”을 주제로 한 복합 장르 소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이화전』의 전기적 구조와 영웅 서사, 그리고 조력자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화전』의 가치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동시대 전기 소설과의 비교 연구이다. 『이화전』과 유사하게 요괴·귀신·신선 등의 존재를 다루는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 전기 소설이 환상성을 어떻게 사회적 윤리 담론으로 전환시켰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당대 영웅 소설과 『이화전』을 대조하여, 영웅 소설의 면모는 물론, 조력자의 등장 과정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시각에서 본 작품이 지닌 의미를 재해석하는 시도도 중요하다. 이 작품에서 보여 주는 인간과 초월, 현실과 환상이 협력하는 구조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서사적 원형이며, 집단 기억과 도덕적 상상력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화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김기동·전규태 편, 『이화전, 권용선전, 양주봉전』, 서문당, 1994.

박용식, 『한국고전문학전집16: 금방울전, 김원전, 남윤전, 당태종전, 이화전, 최랑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1993.

2. 단행본 및 논문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5: 환상물』, 이론과실천, 2016.

박대복·유형동, 「〈전우치전〉과 『이화전』의 전기적 상상력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박희희, 『이화전』의 무속 요소 고찰, 『우리문학연구』 33, 우리문학회, 2011.

박은미, 「영웅 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 〈홍길동전〉·〈유충렬전〉·〈용문전〉을 중심으로」, 성신여대국문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서대석,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3, 휴머니스트, 2008.

서보영, 「보조 인물 중심의 고전소설 감상 양상 고찰: 〈속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20.

오슨 스콧 카드, 김지현 역, 『캐릭터 공작소: 베스트셀러 작가 오슨 스콧 카드의 소설 창작 노트』, 황금가지, 2013.

유춘동, 「새 자료 필사본 『홍길동전』의 성격과 가치: 이명준 소장본과 김선풍 소장본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102, 중앙어문학회, 2025.

_____, 「새 자료 고소설 『장명선전(張明先傳)』의 성격과 특성」, 『전남대 어문논총』 43, 한국어문학연구소, 2023.

이윤석, 『조선시대 상업출판: 서민의 독서, 지식과 오락의 대중화 검색』, 민속원, 2016.

이종필, 「『이화전』에 나타난 임진전쟁의 기억과 상상적 존재들의 의미: 19세기 말의 시대상을 통해 본 시론적 고찰」, 『동방학』 30, 동양고전연구소, 2014.

이주영, 「『이화전』 연구」, 『과학과 문화』 1(1), 서원대미래창조연구소, 2004.

이후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우 퇴치담의 양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8.

최귀득, 「〈장인결전〉 연구: 민담, 『이화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 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0.

한명현, 「『이화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Abstract**The Coexistence of Legendary and Heroic Narratives**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 Role of the Helper
in the Classical Novel *Yi Hwajeon*

Lee Sang-Hee | Cheongwon Girls' Highschool

Kweon Ha-Kyung | Daein Highschool

This study analyzes the coexistence of legendary fantasy and heroic narrative structures, as well as the meaning of the helper motif in the late Joseon classical novel *Yi Hwajeon*. The work reveals its legendary aspect through the appearance of a fox spirit and a ghostly figure, symbolizing the moral crisis of the era. The destruction of the monster represents the purification and restoration of ethical order. Meanwhile, the heroic aspect is shown in the protagonist Yi Hwa's growth and moral completion through trials and supernatural assistance. The spirit of General Yi Yeobae serves as a transcendent helper who grants legitimacy and ensures the fulfillment of justice. Integrating fantastic imagination and moral heroism, *Yi Hwajeon* exemplifies the narrative maturity and ethical complexity of late Joseon literature.

Keywords *Yi Hwajeon*, Heroic Narrative, Jeongi Sosŏl, Helper Motif, Fantasy and Morality, Late Joseon Literature
